

‘두 왕국 이론’과 교회의 현실 참여

◎ 김종락

연재 순서

1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2회: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과 한국교회

3회: ‘두 왕국 이론’과 교회의 현실참여

교회와 통치자의 관계

중세 교황권의 성립 이후부터 기독교 국가의 중요한 딜레마는 교회와 통치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세에는 교황이 각국의 군주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11세기 후반 교황권과 세속권 사이에 있었던 ‘서임권 투쟁’은 교황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후 교황권의 간섭은 단지 교회문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고, 국왕의 승계나 외교 등 비종교적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황에게 도전한 국왕은 여지없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종교개혁 이후 정반대로 바뀌었다. 종교개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속권력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교 국왕의 교회에 대한 간섭권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16, 17세기 각국의 왕들은 신민에 대한 통치뿐 아니라 자국 교회에 대한 통제권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theory of divine right kingship)로 무장하고 성직자의 임명에서부터 교리 그리고 예배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간여하고자 하였다. 사실 그들은 교회정책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 국가의 교회는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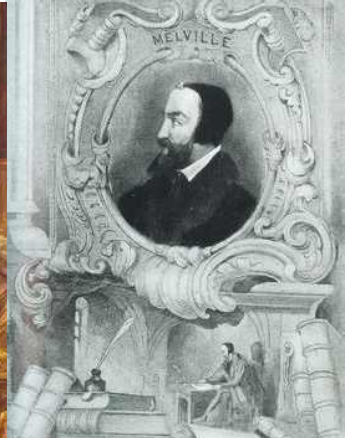
왕의 교회통치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실제로 세속권에 도전할 힘도 없었다. 국왕이 교회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한 국가는 잉글랜드였다. 잉글랜드 국왕은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supreme head)이었으며, 대주교와 주교 임명권 등 교회에 대해 전권을 지니고 있었다.

멜빌의 두 왕국 이론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세속권력과 교회간의 문제를 독특한 이론과 입장으로 정립하였다. 1560년 장로교로의 종교개혁을 성취한 스코틀랜드 국교회는 존 녹스(John Knox)의 지도로 장로회의 근간을 확립하였고, 1580년대 안드류 멜빌(Andrew Melville)과 그의 조카 제임스 멜빌(James Melville)이 제시한 두 왕국 이론(the two kingdoms theory)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확정지었다. 멜빌의 두 왕국 이론에서 두 왕국이란 국가와 교회를 의미하며, 이 두 왕국은 엄격히 분리되며,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속군주는 국가의 통치를 담당하지만 교회는 그의 통치 영역밖에 존재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



스코틀랜드 귀족들에게 설교하는 존 녹스



앤드류 멜빌

는 또 다른 왕국이므로 세속권력이 절대로 간섭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임명한 성직자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단지 세속권력은 교회가 외부의 세력에 의해 위기에 처해졌을 때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은 세속권력에게 정의와 교회의 보호를 위해 칼을 맡겼지만 교회의 일에 간섭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교회는 세속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며, 단지 교회가 세속정부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국왕의 세속적 실정에 대해 경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두 왕국 이론은 1582년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장이었던 앤드류 멜빌과 당시 국왕 제임스 6세(나중에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됨) 사이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제임스 6세의 총회 간섭에 격분한 앤드류 멜빌은 국왕의 소매를 끌면서 그를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여!’라고 불렀고, 이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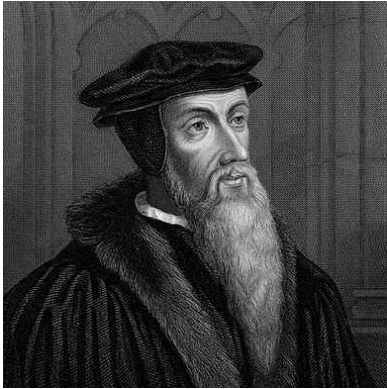
“전하, 이 말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임스 왕과 국가이며, 다른 하나는 왕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교회입니다. 제임스 6세는 이 왕국에서 신민으로서, 왕도,

귀족도, 머리도 아니며, 단지 한 사람의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잘 알다시피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한 칼뱅의 주된 싸움 대상은 교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제네바 시정부였다. 칼뱅은 세속권이 제네바 노회(Consistory)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였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두 왕국 이론의 원조는 칼뱅이었던 것이다. 제네바에서 망명객으로 지낸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존 녹스가 칼뱅으로부터 이 사상을 지도 받았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녹스는 그의 제자 앤드류 멜벨에게 이를 전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의 두 왕국이론을 정립한 인물은 앤드류 멜빌과 그의 조카 제임스 멜빌이었다. 따라서 두 왕국 이론은 ‘멜빌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임스 6세와의 갈등

스코틀랜드에서 두 왕국 이론의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진 시기는 1580년대와 1590년대이다. 이 시기 스코틀랜드 교회가 세속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국왕 제임스 6세가 어린 나이로 인해



장 칼뱅



에든버러 대학교 신학부 도서관 앞에 있는 존 녹스 동상

실권을 잡지 못했고, 귀족들의 빈번한 반란으로 정치적 혼란이 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이러한 자유를 조금씩 침해받게 되었다. 이는 성인이 된 제임스는 통치능력을 발휘하였을 뿐 아니라 1603년 잉글랜드의 왕관까지 쓰게 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때문이다. 왕권신수설 신봉자인 제임스는 두 왕국 이론에 기초한 장로교를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다. 잉글랜드 국왕이 된 이후 그는 “군주정과 장로교는 하나님과 악마만큼 잘 어울린다!”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 제임스는 잉글랜드의 왕이 된 후 안드류 멜빌을 런던으로 불러 투옥시킨 것은 장로교에 대한 그의 복수였다.

교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 에라스투스주의

정부가 교회문제에 대해서 교회보다 우위에 있으며, 교회에 간섭할 수 있다는 시각은 에라스투스주의(Erastianism)라고 불린다. 이는 16세기 중반 하이델베르그 대학 의학부 교수였던 토마스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 1524-83)의 사상을 뜻한다. 당시 하이델베르그는 칼뱅주의자였던 프리드리히 3세(Friedrich III)가 팔라틴 선제후가 되면서 제네바와 같이 엄격한 칼뱅주의 규율이 지배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

었다. 이에 에라스투스는 칼뱅파 교회 지도자들의 권력남용을 비판하고, 장로직과 파문권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권한이라고 주장하였다. 에라스투스의 주장은 종교개혁가 베자(Beza)로부터 단호한 반박을 초래하면서 유럽전역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에라스투스는 기독교 국가에서 모든 강제력은 그것이 영적이든 또는 세속적이든 오직 한 곳, 국가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회의 치리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당시 여러 나라에서 교회에 대한 중요 결정이 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했던 것은 이 같은 에라스투스주의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643년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잉글랜드 의회에 의해 소집되었고, 의회의 명령아래 있었다는 것은 이를 가장 잘 보여 사실이다.

요컨대, 장로교의 정치사상은 국가와 교회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두 왕국 이론이며, 이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예에 반해서 에라스투스주의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두 왕국이론의 새로운 측면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과연 국가에 대해 간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영역주권 이론이나 두 왕국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교회 일에 간

섭할 수 없듯이 교회 역시 정부 일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해를 부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세기 한 때 대한민국은 독재정권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적이 있다. 당시 한국교회의 일부는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독재정권에 저항했으나, 대부분 보수교단들은 영역주권 이론을 핑계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장로교의 두 왕국 이론을 제대로 적용한 것인가?

칼뱅과 제네바 노회

칼뱅은 제네바에서 시정부의 노회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반면에, 노회는 적극적으로 시정부에 올바른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고 보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다. 칼뱅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그가 제네바에서 신정정치(theocracy)를 했다는 것이다. 신정정치는 종교적 역할을 맡은 사람이 통치를 하거나, 통치자가 되는 경우이다. 즉 제정일치의 사회, 즉 종교적 기구가 통치기구가 되는 경우이다. 칼뱅의 경우 이러한 평가는 신화에 불과하다. 당시 제네바의 시정은 25명의 선출직 행정관들로 구성된 '소의회'가 주도하고 있었고, 그들은 입법기능을 가진 '200인회'에서 선출되었다. 이 두 기관은 상호 보완적이고, 견제적인 기구였다. 제네바 노회(consistory)는 교회와 관련된 경우에 신자들을 불러 재판할 수 있었고, 수찬정치라는 벌을 내릴 수 있었으나 그 외에는 재제수단이 없었다. 칼뱅은 이 치리법원의 한 구성원이었다. 이처럼 제네바의 시정은 소의회나 200인회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노회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지만 공

식적으로는 이들의 산하에 있는 기구였다. 치리법원의 결정은 비록 종교적 문제를 해도 시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엄격히 말해 제네바는 에라스투스주의가 어느 정도 작동하는 도시였다. 물론 칼뱅의 영향력은 시정부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칼뱅의 의사가 거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분명 제네바 노회는 통치기구가 아니었다. 즉 제네바 노회는 교회문제 뿐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는 세속적인 일에도 시정부에 건의(명령이 아니라)를 한 것이다. 이는 노회가 제네바의 통치기구가 되었다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두 왕국 이론은 정부가 교회의 기구가 될 수 없음같이 교회가 정부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정부의 불의에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

교회의 현실참여 방향

더 이상 두 왕국 이론이나 영역주권 이론이 우리의 현실참여에 대한 게으름과 비겁함을 숨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정부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정부가 되고자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정부를 향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되 교회의 유익이나 권익을 찾고자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목소리는 항상 억눌린 자들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한국교회는 지난날 두 왕국 이론이나 영역주권 이론의 그릇된 해석 아래 숨었던 비겁함을 회개하고 국가와 사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김종락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이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지부관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기독교문화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